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법답게 사는 사람을 섬겨라

탐욕·애착 벗고 마음 안정된 사람
사랑·존경하며 걸림없이 살아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란 살아 숨쉬는 한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욕망의 지속을 의미한다. 욕망을 버리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까지도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욕망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사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무쌍한 세상이기에 우리들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사이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의 도래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도 한다.

이러한 점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부처님 당시에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울사가라라는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도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성인인 공자님도 사람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남기고 있다. <논어>에 의하면 제자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공자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사람도 섬기지 못하거늘 하물며 귀신을 섬기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그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기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잡아함경> 제11: 280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선 사람을 섬기되 법답게 사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코살라국의 나가라빈다 성에 계실 때 성안에 거주하던 장자들을 위한 설법에서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공경하고 섬기지 말아야 하느냐?' 고 물으면 '눈으로 사물을 보고 탐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법답지 못한 사문과 바라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고 대답하라.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느냐?' 고 물으면 '눈으로 사물을 보고 탐욕심을 내지 않으며 애착을 벗어나 그 마음이 안정되어 법답게 행동하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 고 대답하라."

이러한 설법을 들은 성안의 장자들은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자신을 칭찬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지도 않으면서 바른 뜻을 말씀하셨나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시고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시며, 헤메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 주시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혔습니다"고 칭찬했다.

장자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벌의 총수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인도가 아무리 계급 사회였다고 하지만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자들의 모임에서 부처님을 초빙하여 섬길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어떠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던 것이다. 인도 사회에서 사문이나 바라문은 가장 존경 받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도자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물은 것이 된다. 한편으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던 부처님의 됨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대답을 듣고 나자 장자들은 진심으로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남을 폄하하지도 않았으며, 법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법답게 사는 것을 '사물을 보고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애착을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구나 출가하여 진리를 찾는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이러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탐욕과 애착을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불교에선 무소유라 말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다. 철학적으로는 대상과 주체 어느 것에도 애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잡아함경> 제35: 973경에서는 출가하여 부처님의 문하에서 공부하는 이유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서"라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끊어버리면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현세와 내세에서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쁘며, 타는 듯한 갈등과 분노에서 벗어나 스스로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답게 산다는 것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세속에 살더라도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되, 걸림없이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누군가의 존경과 섬김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주변 가까이에 섬기며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범 룡 스님

(대구 비로암 조실)

◇손을 들어가며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범룡스님은 세수 89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다. 금강같은 뜻을 세워 흔들림없는수행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범룡스님.

"진실한 마음 걸림없어 부처님과 통하죠"

자신을 엄히 다스리는 일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본

참선수행은 이전의 상식적 견해 넘어 깨침의 입장에서 세계를 재인식 하는 것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넓고 큰 행원은 첫째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둘째 부처님을 찬탄하며, 셋째 널리 공양하며, 넷째 업장을 참회하고,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며, 여섯째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일곱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며, 여덟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며, 아홉째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며, 열째는 지은 바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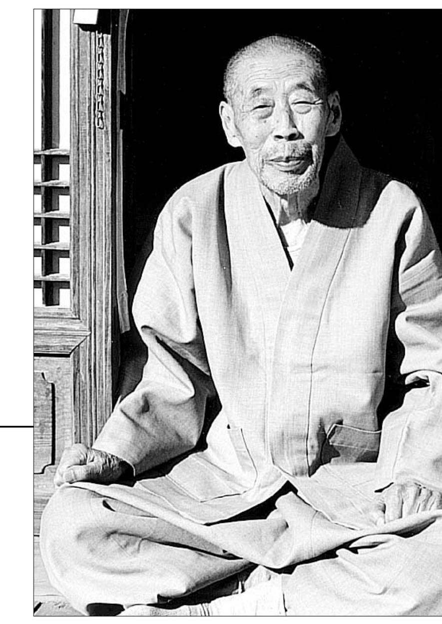
불교에 귀의한 불자들이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수행 정진하여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참다운 수행을 통하며 공덕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교 수행의 골격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일을 합니다. 또 법회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발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회(懺悔) 또한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기 위해 행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懺)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며, 회(悔)는 이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하여 그 죄를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참회를 이야기 할 때 업장을 참회한다고도 하는데, 이 업장 참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으로 내려오면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이없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멀리 법계 극미진수세계 일체 불보살 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회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으오리다' 하는 것이니라."

업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가 있다는 것은 행위를 하는 본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인간의 본성, 즉 다시 말해서 본래 자리인 진리에서 벗어난 착각된 자아를 본체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밝은 자성을 잊고 자성을 어긴 행위는 그 모두가 업으로서 인간 본분과 어긋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무한하고 일체와 더불어 조화되고 창조와 환희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인간 본성을 어기고 착각을 일으켜서 그릇된 자아를 설정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참다운 수행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참회하였으면 마땅히 일체 죄업이 소멸될 것을 믿고 스스로 청정광명심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바르게 행하고 쉼 없이 수행한다면 어두운 업장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선 정진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오고 있는 범룡스님.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불교를 올바로 신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교를 바르게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궁극에는 해탈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걸림이 없고 멈춤이 없으며, 부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이 세우신 '고통 받는 중생을 반드시 건지겠다' 는 행원력에 의지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선 수행은 마음을 닦는 공부로 부처님 당시부터 매우 중요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불자들에게 참선 수행을 권합니다. 참선은 마음속의 온갖 번뇌와 망상을 깨끗이 하고 일념에 머물기 위한 수행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삼매(三昧)라고 하는데, 마음을 한 자리에 머물게 하여 움직이지 않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망념을 여의는 것을 뜻합니다. 삼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숙면 상태가 아닙니다. 지혜 광명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 본래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적극적인 활동이 그 가운데에서 펼쳐집니다. 이전의 상식적 견해를 넘어 깨침의 입장에서 세계를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조 혜능스님은 "지혜로 관조하고 일체의 법에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이 견성(見性)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삼매에 들기 전에는 불법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모두 기복 불교입니다. 수행하는 불교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선 수행 하십시오.

최근 선(禪)에 대한 관심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진리의 영원성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고대의 종교사상에 귀의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식혀주는 선의 위대성은, 그러나 무문별한 선 관련서와 단전호흡법 등의 범람으로 올바른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정한 선 수행은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불자들을 대할 때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선 하는 데에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옛날에 조주스님은 무(無)자를 생각 생각에 이어서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눈앞에 마주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금강 같이 굳은 뜻을 세워 한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다보면 간혹 광채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해 살피고 다시 관찰하다가 혼침이나 산란이 생기면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천번 만번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삼매의 경지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마치 흐르는 물같이 마음과 경계가 고요해서 쾌락하고도 편안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덕 높은 선지식을 찾아서 소질을 충분히 움직여서 치우침도 바름도 없게 하고, 다시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의 묘한 법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조금 익었다고 자만하거나, 잘 되지 않는다고 자꾸 책을 찾아보고 그것에 의지하려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중단하고 하다보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많은 이들이 참선을 어렵게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삼매를 체험하겠다는 욕심도 버리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마다 말없이 참회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고 그 본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천번, 만번이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다보면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비록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불자가 걸어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기자가 본 범룡스님

범룡 스님은 올해 세수 89세이시다. 1914년에 평안북도 맹산에서 태어나서, 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해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방되기 몇 해 전 오대산 상원사를 시작으로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예전에는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구월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묘향산 등 네 곳의 산에서 방부를 튼 수좌만 인정을 했다는데, 스님은 파계사 고송 스님과 더불어 네 곳 모두에서 참선 수행을 한, 몇 안되는 선승이시다.

"법문 안한지 오래 됐어요. 외출도 않고 거의 매일 비로암에서 지냅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나이 드니까 그저 기운이 조금 조금 줄어들 뿐이예요. 매일 밤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3시 쯤 일어나요. 실컷 자는 겁니다. 한창 수행 정진하던 젊은 시절에는 3시간도 못 잤어요. 3시간 자면 딱 좋은데, 옛날 스님들은 2시간만 자라고 했거든요. 2시간 자고 눈을 떠 보면 잤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금강·구월·지리·묘향산서 수행한 선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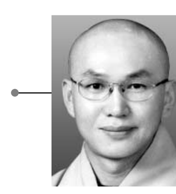
범룡 스님은 1977년부터 비로암에 주석하고 계신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바로 앞의 논밭에서 일하시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는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다. 예전처럼 직접 일 하지는 못하지만 아흔을 바라보는 요즘도 매일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수행 정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젊어서 배운 것은 평생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50만 넘으면 모래에 글 쓰는 것처럼, 처음엔 잘 되다가 바람 불면 그 자취가 싹 없어지듯이 한다니까요. 또 70이 넘으면 물에 글을 쓰는 것과 같아서 쓰는 동시에 지워져 버린다는 비유가 있는데,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그게 참말입니다." 범룡 스님은 요즘 탄허스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CD에 수록한 '동양 사상' 시리즈를 듣고, 불자들이 갖다 주는 책도 읽는다. 그런데 공부하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아 듣고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책을 놓고 나면 뭘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단다. CD플레이어 조작도 쉽지가 않아서 신도들이 올 때면 배워서 사용하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조작법을 잊어버리곤 한단다.

범룡 스님은 한암 스님에게서 받은 '무(無)' 자 화두를 평생 참구하며 수행자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깨달음에 대한 스님의 구도열은 대단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선방을 걸어서 찾아다녔다.

범룡 스님의 방에는 독특하게도 세계지도, 대한민국 전도가 나란히 걸려 있다. 왜 그걸 붙여놓으셨냐고 여쭈었다.

"예전에 인도도 가보고, 중국 돈황, 캐나다도 가 보았어요. 그때 샀던 건데, 그냥 붙여 놨지요. 사실 내 어린시절 꿈이 세계 일주 였거든.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가끔 바라보노라면 다 가본 곳 같아요. 아이구, 오늘 정말 쓸데 없는 말을 많이 했네요. 그게 어느 스님 말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하고 생각하면 안한 것만 못 하다' 고 했는데…"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퇴휴스님 (上)

새우잠 포교로 종합도량 일궈
굳은 의지·탁월한 기획력 존경

초기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절 을 세우기에 적당한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성(城)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으면서 숲이 있는 고요한 한정처(閑定處)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언급은 그 당시 출가교단의 탁발(托鉢)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음식이나 의복, 탕약등의 생필품을 공양받기 위해서는 신자들과의 교류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최초의 '절' 을 백마사(白馬寺)로 보고 있는데 이곳은 관청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불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세력은 왕족을 중심으로한 지배 계층이었다. 자연히 '절' 은 궁궐과 도시에 있었을 것이다. 신라 경주의 황룡사 같은 절은 시내 한복판에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불교는 건국 이념으로서 왕족, 귀족, 평민들 사이에 폭넓게 받아들여져 도시와 촌락에 많이 건립되었다. 조선의 건국은 이러한 절 의 근본 기반을 흔들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이념적 배경과 고려 왕조의 정신적 가치였던 불교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상황들이 맞물려 절과 스님들을 산으로 내모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삼국시대에 전해졌던 선종(禪宗) 계통의 불교 영향으로 깊은 산중에 수행처로서의 가람(伽藍)이 조성되었음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림 · 문병성

'절'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도심포교당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도시의 변두리나 복판에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전법(傳法)의 원력 하나로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입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보통은 절 하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과 기와, 단청 등을 떠 올린다. 그러니 빌딩속의 절에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다. 포교당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절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보다 왜 도심에 포교당이 생겼는지, 빌딩에서도 절로서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점 집은 아닌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느라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한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그만두고 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사실 큰 절에선 살기가 훨씬 편하다. 자신의 소임만 충실히 해낸다면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수행시간이니까.

그러나 포교당은 다르다. 기도는 물론 각종 법회, 행사에다가 재(齋)를 지내고 신도들의 상담, 절의 경제적 운영까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아니면 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도심포교당 10개 중 6~7개가 1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문을 닫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을 만큼 포교당의 생활은 어렵다. 이제 겨우 5년 정도를 살고 난 나의 푸념이다. 그럴 때 내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시던 스님이 퇴휴스님이다.

스님은 나보다 5년 정도 먼저 포교당을 열고 정진했다. 삼각산 운가사에서 몇 명의 청년 불자들과 함께 겨우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여 도봉구 창동역 앞의 건물 귀퉁이에서 맨 시멘트 바닥에 새우잠을 자며, 베니어판의 임시 불단에 석굴암 부처님 사진을 모시고 시작한 포교활동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 자락에 3백여평의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 등록 신도 2천여 세대의 거대 도심 포교당으로 자리 잡았다. 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고비를 넘긴 도심 포교의 베테랑 스님인 셈이다. 나는 스님에게서 도심 사찰로서의 본연의 기능에서부터 세세한 운영의 방법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지금은 포교의 도량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스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서 생각을 고쳐 먹곤 했다.

경제적으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여유가 없어지는게 보통이다. 포교당의 살림도 그러해서 나는 그때 그때의 상황을 모면하곤 하는데 스님은 그럴때일수록 보다 치밀한 계획과 기획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스님이 주지로 계시는 법장사의 신행활동을 살펴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 올해로 개원 12주년을 맞는 법장사는 유치원을 포함한 종합 기능의 도심 사찰 건립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대중 모두가 정진하고 있다. <계속>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한울림국악기

국내최초의 등록상표 "한울림"으로 국악기의 브랜드시대를 개척한 한울림은
서울과 부산에 직영전시장과 전국 10여개 도시에 한울림악기 전문 대리점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국악기 전문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생산현장 – 경기도 양평에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는 한울림 양평공방연구원은 그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악기를 생산한다는 내용면에서도 그 최대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울림공방이 가장 자랑스럽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지향한다는 품질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 타악기 PR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율이 있는 악기와 고정음율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장구(JANG-GU) ●북(DRUM)
●징(CHING) ●꽹가리(Kkwaenggw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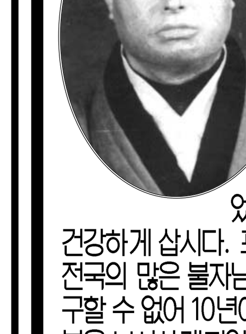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가야금(KAYAGUM) ●아쟁 ●거문고 ●해금
●개량 가야금(IMPROVEMENT KAYAGUM)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대금/소금/단소(TAEGUM/SOGUM/TANSO)
●개량대금/개량단소(IMPROVEMENT TAEGUM, TANSO)
●태평소 ●피리

◈ 악 세 서 리 ACCESSORIES
◈ 소 품 STAGE PROPERTIES
◈ 유아용악기 CHILDREN' S INSTRUMENTS
◈ 음반/비디오/교재 CD-ROM/VIDEO

한울림국악기 제품문의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6-16 TEL : 02)521-3277 / FAX : 02)521-3278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 3동 144-2 TEL : 051)501-3191 / FAX : 051)501-3192
양 평 공 방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90 TEL : 031)774-1007 / FAX : 031)774-100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왕방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자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 가입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모 2003학년도 불교학과, 범패과, 불교미술과 신(편)입생 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가. 불교학과 : 정규생(50명) 통신생(50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교적 인격과 이상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지도자 (스님 · 포교사)가 되도록 하며 예불 · 불공 등 기초불교의식까지 습득하도록 지도함. 졸업동문은 유수종단의 지도자로 활약 중.
나. 범 패 과 : 정규생(30명)
인간문화재 제 50호 송암, 벽응, 일응 큰스님의 어맥을 이어 불교신행, 예술의 꽃인 영산재를 이론과 실기를 겸해 지도하여 교화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00% 진로 확정.
다. 불교미술학과 : 정규생(30명)
인간문화재 제 48호 만봉 큰스님의 화맥을 이어 불교미술(단청 · 불화)의 역사와 이론 및 특히 실기와 불교 교리를 함께 배우며, 문화재 수리 기술자시험 특강을 통해 취업 지도에도 탁월하여 단청장, 불모 등으로 활약함.
※ 각과 공히 편입생 10명 내외

2.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불교미술과)

3.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2년 12월 2일 - 2003년 2월 17일
(평일 오후 5시까지, 토 · 일요일은 휴무)

4. 전형일
※ 2003년 2월 22(土) - 23(日)일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동 태고사 02-763-0229
02-763-8536
나. 태고종 총무원 :
서울 성북동 태고사 02-745-2030-2
다. 태고종 지방교구 종무원
라. 경서원 : 조계사 앞 02-733-3346

※ 교수진 ※

정태혁 교수 : 선학개론, 밀교사상	김미선 교수 : 한문
	김치온 교수 : 철학개론
박운곡 교수 : 불교학개론, 대승사상	권영관 교수 : 불화실기
	이상배 교수 : 불화조형실험
김법장 교수 : 정토사상	김희정 교수 : 단청실기
심상현 교수 : 불교의식론	조윤철 교수 : 단청실기
백설운 교수 : 불교의식	손연칠 교수 : 불화조형실험
김수암 교수 : 금강경	주명철 교수 : 중관사상
최원허 교수 : 상주권공	이기선 교수 : 불화론
장청봉 교수 : 상주권공	엄혜용 교수 : 교리발달사
민법현 교수 : 불교학	노태범 교수 : 수묵화
김재영 교수 : 포교론	오지연 교수 : 중국불교사
이경우 교수 : 비교종교	박재걸 교수 : 유식사상
이형련 교수 : 승가경영론	

※2002년 현재

한국불교 태고종립 동 방 불 교 대 학 ☎ 02-763-0229,8536